

5월단체, 한국당 5·18조사위원회 일단 수용

“2명, 5·18 왜곡·편향 인사
우려 크지만 조사위 출범 우선”
“활동 지켜보며 대처 할 것”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 위원' 2명을 추천(광주일보 2019년 11월 12일자 1면)한 것을 놓고 5·18기념재단측과 5월 단체들은 일단 수용 의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일단 수용했지만, 일부 추천 인물의 과거 전력 등 성향상 5·18의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 위원으

로 추천한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자기한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 중 이밖에 재추천된 이동욱씨는 지난 1996년 잡지 월간조선상을 통해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고, 5·18 당시 계엄군의 화염방사기 사용, 성폭행 등은 모두 오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씨는 또 2013년에는 '유튜브'의 한 방송에서 '소수의 선동가와 다수의 선량한 시민, 이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는 등 왜곡 발언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이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자격요건에 관한 부분을 보완해 이씨를 재추천했다.

이미 추천된 차기환씨는 2015년 한 보수단체의 토론회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와 서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5·18 진상을 왜곡·과장해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시켰다"고 주장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망언을 쏟아낸 인물이다.
차씨는 자신의 SNS 트위터를 통해 일간 베스트(일베)에 올라온 '경악! 북한군 광주 5·18남과 사실상 밝혀져'라는 글 등도 게시했다. 차씨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족들로부터 고발당한 전력도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일부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진상조사위 출범에

관해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무엇보다 조사위의 빠른 출범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동욱씨의 경우 과거 5·18을 편향하게 왜곡한 이력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5·18의 진실을 바로 알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사회장은 "5월 단체들은 올해 안에 5·18 조사위가 출범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1년 넘게 미뤄졌다"며 "일단 올해 안의 출범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사위원이) 빨리 구성되길 바란다. 다만 과거 5·18에 대해 잘못된 언행을 한 전력이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5·18에 대해 조금이나마 왜곡이나 편향이 있다고 생각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5 **달뜨기** 18:50
해짐 17:28 **달짐** 08:23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비 또는 눈 오는 곳 있으며 바람 강하게 불어 춥습니다.

광주	비온뒤 갬	5/9	보성	흐림	2/9
목포	비/눈온후 갬	7/10	순천	구름많음	5/11
여수	구름많음	6/11	영광	비/눈온후 갬	5/8
나주	비온뒤 갬	4/10	진도	비/눈온후 갬	8/11
완도	구름많음	7/10	전주	흐림	3/8
구례	구름많음	4/10	군산	비/눈온후 갬	2/8
강진	흐림	6/10	남원	비온뒤 갬	3/9
해남	비온뒤 갬	5/10	흑산도	구름많음	8/12
장성	비/눈온후 갬	3/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서~북 1.0~3.0	남서~서 1.0~2.0
남부	북서~북 2.0~4.0	남서~서 1.0~3.0
남해	북서~북 2.0~4.0	북서~북 1.0~3.0
서부	남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1.0~3.0
	남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낮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06 20:39	02:50 15:29
여수	03:32 16:01	10:04 22:05

◇ 주간 날씨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	☀	☀	☀	☀	☀	☀
2/17	9/19	10/19	12/12	4/10	3/12	3/14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13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2019광주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에서 행사 참가자들이 구인업체와 상담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빛 1호기 재가동 중단” 탈핵 운동가들 1인 시위

탈핵 운동을 펼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중단 등을 요구하며 탈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는 13일 광주 동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광주비상회의에 참여한 20여개 시민·노동·사회단체, 종교계, 정당 등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와 3·4호기 폐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탈핵 순례를 매달 광주 곳곳에서 전개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열 출력 급증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가동을 정지했던 한빛 1호기를 최근 재가동했다. 한빛 3·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이 발견돼 정비 작업으로 장기간 가동이 멈춘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생독립운동 4명 등 광주·전남 독립운동 유공자 8명 새로 발굴 내일 순국선열의 날 포상

올해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독립운동 유공자 전수조사결과, 광주·전남에서는 광주학생독립 유공자를 포함한 국내외 독립운동가 8명이 새롭게 발굴됐다.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는 13일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순국선열의 날 위훈을 기리는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15일 오전 10시 광덕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새로이 발굴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고 13

일 밝혔다.
이번에 전국에서 새로이 발굴된 독립유공자는 총 79명으로, 이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8명(광주 7명·전남 1명)이 선정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유공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존 유공자 등록 기준이 완화된 점과 지난해 말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앞두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기존 포상 기준이 ‘수형·육고 3개월 이상’으로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이 대

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일제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경우’가 심사기준에 추가 포함됐다. 국내 항일운동 관련 유공자 2명, 일본 방면 관련 유공자 1명, 3·1운동 관련 유공자 1명 등이다.
8명의 신규 독립유공자 중 건국훈장 애족장 대상자는 양병사·고삼현·이백춘 등 3명, 대통령표창은 이강후·승천일·이종삼·서홍렬·박상술 등 5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양병사 선생은 1933년 6월 제주도에서 비밀결사 조직 활동을 하며 같은 해 10월 농민조합 조직을 건설하려다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고삼현 선생은 1931년 장흥에서 노동야학을 개설해 활동하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후 1934년 전남운동협의회 활동을 하다 불참해 옥고를 치렀다. 또 이백춘 선생은 1932년 8월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대학생 10명중 7명 “노동 부당대우 경험”

광주지역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노동 경험을 하던 중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학생이 겪는 부당대우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3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31%, 임금깨끗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대학생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8개 대학 재학생 2041명 중 81.8%가 노동 경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2%가 아르바이트 조사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부당대우 경험률(23.9%)보다 3배 가까이 높은